



충청북도 의회 소식



150만 충청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59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안 심의

충청북도의회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제 259회 임시회를 열어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기타 현안을 처리하고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청주의료원 검진센



▲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타 현안을 처리하였다.

터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추진상황, 충청 회를 개최하였으며, 못자리 BANK사업장 등 도정 북도종합복지정보망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간담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국가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개최한 '댐건설 장기계획변경(안) 설명회'에서 그동안 백지화되었던 달천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달천댐 개발 가능임지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99년 12월에 댐건설 계획이 없음을 충청북도지사에게 회신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에 수립한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에도 달천댐 건설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도,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달천댐 건설 기본설계비 27억여원을 계상하였다가 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달천댐 건설을 추진하

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댐 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때마다 우리 도민은 생업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강력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댐 건설 논란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은 주거의 불안감과 생산손실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는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달천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또다시 도민들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정부정책을 불신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천댐 건설 지역은 국립공원 속리산 지류의 하단에 위치하여 맑은 물과 청정 환경지역으로 천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 망개나무, 다슬기, 청동오리,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만약 달천댐이 건설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21.8㎢의 면적에 해당하는

괴산군의 1개읍(괴산읍)과 3개면(불정, 장연, 감물)이 수몰되고, 800여 세대의 이주민이 발생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주변지역에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괴산군'은 자치단체로서의 존립 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발전용댐인 괴산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80년도에 완공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 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00여 세대 17천여 명의 수몰이주민이 발생하였으며, '85년도에는 충주댐 완공으로 인하여 충주·제천·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0여 세대 38천여 명의 수몰이주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장밋빛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댐 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상당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인개일수와 습도상승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농작물 피해, 재산권 피해, 생활피해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민은 정부의 댐 건설 정책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매우 실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찬가지로 달천댐도 건설되면 충분한 보상 없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과 댐 주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당하는 이러한 댐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도민을 불신케 하고 힘들게 하는 달천댐 건설계획이 즉시 백지화되고, 도민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150만 도민과 함께 달천댐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 4. 24.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개 회 사

한·미 FTA 피해 농가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정취가 더해가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10조원을 돌파하는 전국 제1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어 충북 도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농·축산업 및 일부 제조업 등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일은 절기상 “곡우”입니다.

범서를 파종하고,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해야 하는 절기이므로, 금년 한 해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리시설 관리 등에 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

또한 4월은 「장애인인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선진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도의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복리향상과 충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FTA피해 농가 소득보전 촉구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쇠고기 수입 개방 등 우리 농업 부문에 엄청난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타결되었다.

이에 정부는 선진경제의 도약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

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이번 협상은 역대 최대규모의 개방으로 거의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어 이제 우리 농업은 완전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었다. 한·미 FTA가 대세이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생명산업인 농업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같이 짊어져야 할 때이다.

도내 농가 수는 도 전체의 16.9%이며, 농업인구는 도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이번 협정타결에 따라 도내 농축산물 주요품목의 피해규모를 1,3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으며, 정부 피해보상대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론에 휩싸여 졸속한 지원대책이 되지 않도록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차원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추진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내 농업분야의 품목별 구조조정 방향과 소득보전 대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도민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이필연 의원
(음성 제2선거구)

민선 4기 충북도정은 정우택 지사님께서 취임하신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고, 그 결과 150만 모든 도민의 여망인 하이닉스 충북 유치를 이루어 냈으며,

10조 2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민선 4기가 이렇게 경제부문에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0개월간 충북도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 도정을 감시·견제하는 도의원으로서, 충청북도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충북도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복지여성국장 임명과 선거당시 지사캠프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지사님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대거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 도 출연기관 등에 배치되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서실, 청주의료원,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충북개발연구원, 테크노파크, 청람제 등에 배치되는 등 최근 충북도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변질되고 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인사와 관련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내고장 문화탐방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최광옥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우리고장의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서 삼국문화가 어우러져 중원문화를 탄생시켰고, 66억 인류의 소중한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를 탄생시켰으며 세계의 대동령이라 불리는 유엔사무총장이 탄생하는 패거리를 낳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고장의 절경을 돌아보며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역사의 향기가 가득 서려있는 내 고장의 문화유적을 찾아 선조들의 찬란했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면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어린가슴에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도내 관광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같은 사업에 반드시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장래와 교육을 위한 일이니 만큼 각 관련기관이나 업체에 협조를 얻어 입장료도 할인해 주며, 후세들을 위한 투자명목으로 충북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충북도 교육청이 강력한 실천 의지만 보여준다면 지극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한다.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총 2조 3,959억원 수정 의결
- 21억 7천만원 삭감-

▲ 예산안 심사 4월 20일 소관부서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다.



▲ 간담회 4월 20일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제259회 임시회 회기중인 4월 20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종합심사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세출예산 2조 3천 959억 3천 179만 6천원 중 소모성·낭비성 경비와 사업추진 효과 및 사업추진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21억 7천 45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채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도비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추진)과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용역내용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예산 편성시 투자재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의 시기성 등에 대하

여 철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예결특위는 다음 제260회 임시회(5.10~5.18)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0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확정예산액	제출예산액	비 고
합 계	2,395,931,796	2,395,931,796	2,174,560 금액 예비비로 편성
일반회계	1,915,049,865	1,915,049,865	2,109,900 금액 예비비로 편성
특별회계	480,881,931	480,881,931	64,660 금액 예비비로 편성
공 기 업	소 계	258,267,910	258,267,910 -
	지역개발기금	258,267,910	258,267,910 -
기 타	소 계	222,614,021	222,614,021 64,660 금액 예비비로 편성
	충북과학대학운영	6,879,774	6,879,774 64,660 금액 예비비로 편성
	의료급여기금	174,851,341	174,851,341 -
	농어촌개발기금	16,703,009	16,703,009 -
	학교용지부담금	18,886,897	18,886,897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293,000	5,293,000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6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60회 임시회(2007. 5.10.~5.18.)는 5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을 하며, 5월 18일 제2차 본 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59억 4,678만 4천원 보다 5.5%인 3억 2,557만 1천원이 증가한 62억 7,2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와 직급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과 어린이 의회교실운영 사업비, 본회의장 노후시설 교체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간담회 ▶

4월 16일 제 26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예산안 심사

4월 16일 2007년 제1회 의회사무처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



▲ 간담회 4월 16일 공유재산관리 계획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열린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등 3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와 정책관리실, 균형발전본부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밖에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4월 17일에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도내 장애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의 숙원사항인 사무실 마련을 위한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의 건, 한방·양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건강관리센터 신축의 건, (주)하이닉스 청주공장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매입을 계획하였던 공장부지를 (주)하이닉스가 직접 매입함에 따른 매입계획 취소의 건 등을 현지 확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다.

4월 18일과 4월 19일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7천8백만원을 삭감하였다.

그 밖에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기능을 확대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2007년 5월 10일 개최하는 충청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기에는 제259회 충청북도 임시회 2차 본회의(2007. 4. 24.)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계획서, 서류 제출·현지확인 대상 선정 등 행정사무조사 준비와 대전·충남 광역의회를 방문하여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의 공조체제 구축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충주의료원 신축 이전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심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2007. 4. 16일~ 24일까지 9일간 열린 제259회 임시회기 중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충북과학대학 학생생활관 사위장 설치의 7개 사업비 174,460천원을 삭감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식품첨가물검사의 5개 항목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와 충주의료원 이전신축관련 BTL 사업비 571억원(국비 50%, 도비50%)에 대한 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유아휴직관련 연가제도 개선 및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개선과 공무원의 임양휴가제 규정을 신설하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동명청 변경에 따른 학교명 변경과 오창면의 읍승격 및 학교이전에 따른 주소변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간담회 ▶
4월 18일 청람재 운영관련 집행부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4월 19일 복지환경국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못자리 Bank와 우량 건묘 생산현장 확인



◀ 현지확인 실시
4월 23일 못자리 Bank (내곡새싹작목반)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농업기술원과 농정본부,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못자리 Bank 현지 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4월 18일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안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4월 17일과 4월 18일 양일간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기술원과 농정본부,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위원들은 예산안이 자료 조사한 금액보다 많이 계상되었다고 집중추궁하고, 도민의 세금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4월 23일에는 지난 2004년부터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라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못자리 Bank 사업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현장을 방문하고, 우량 건묘 대량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정윤숙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부녀화·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간담회
4월 18일 경제투자본부의 현안 업무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

현지확인 등을 통해 추경예산안 면밀히 다뤄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적인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균형적인 지원과 충북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와 관련된 안전진단 여부,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의 도비반환금의 적정성,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 공연 등의 실효성, 자연보호 바지선 구조개선 등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재계상한 사유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비의 전액 삭감 사유, 용역사업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중점 질의하였으며, 예산안 수립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함은 물론 예산안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과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와 관련하여 체육회관을 방문하는 등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기하였다.

4월 17일에 상정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을 준용함은 물론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주소체제 개편,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추진, 교보생명캐피탈회 유치 추진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남대 개방 제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 간담회
4월 16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 예산안 심사
4월 17일 건설재난관리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칼럼

「의원 보좌관제」도입 小考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세월의 빠름이 느껴지는 4월

어느덧 라일락 향기가 화사함을 뽐내는 4월을 맞이했다. 분명 봄이긴 한데 희뿌연 날씨가 잦아서 그런지 사람들 마음이 그리 가볍지 않은 아닌 듯 싶다. 요즘은 본 의원의 가슴도 먹먹할 때가 많은 것은 꼭 날씨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만인의 위’보다는 ‘만인이 필요해서 찾는 사람’

지난해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동료 의원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오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동네 북두드리듯 질타를 받아오고 있는 게 도의원의 현주소인 것을 생각할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다. 소위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채로 보여져서야 되겠는가 자문해 본다. 물론 백프로 완벽하게 의정활동을 소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서 민심에 귀 기울이는 일부터 소속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연구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의 해결사가 되어 동분서주하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도 주위의 시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한 것 같다. 바로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의원 전문성 제고는 「의원 보좌관제」도입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원 보좌관제」도입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등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들로부터 보좌를 받고 있다. 이 인원으로도 부족하여 1명의 보좌관을 더 늘리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의회에 왜 보좌관이 있어야 하는지 직시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의원 보좌관제」는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 발전을 실현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중앙정부가 혁신과 균형 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필수 불가결한 수요를 과거의 잣대를 쥐고 뭉기적 거리고 있으니 이야말로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크나큰 과오라 아니할 수 없다. 부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과연 지방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도 선진국에 있어야만 우리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대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에 본 의원은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의원 보좌관제」야말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주고 가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행복한 도민과 더불어 강한 충북을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필요한 공급을 알아야만 한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시대적 상황은 어떤지, 도민에게 맞춤식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되새겨 본다면 「의원 보좌관제」에 명쾌한 해답이 들어있다. 「의원 보좌관제」야말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시켜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

칼럼

‘창의적이고 섬세한 농정(農政)시책’을 기대하며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오늘날 우리 농촌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다.

농촌마을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늙고 병든 농민들만이 외롭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젊은 사람들이 맡아 의욕적으로 일해야 할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도 환갑을 훌쩍 넘긴 분들이 많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농촌은 WTO, DDA, FTA 등 ‘세계화’라는 눈

은 파도를 타고 물밀 듯이 들어오는 외국농산물과도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

농촌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농촌경제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농민들이 빚을 내서 농사를 짓는다 해도 값싼 중국산 농산물에 밀려 이자감당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어난 농가부채는 연체로 이어져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또한, 농업의 붕괴는 곧바로 상업의 붕괴로 이어져, 오늘날 농촌경제는 그야말로 고사(枯死) 직전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실정이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뿌리를 둔 도의원으로서, 농촌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현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섬세한 농정시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저 단순히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

촌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그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농정시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농촌지역은 외부여건이 열악하고 단순 재생산을 통한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촌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년 그 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재투자자는 지역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주체에 의해서 집행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농촌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한 지원방식을 ‘지역쿠폰제’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다.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작은 제안

- ‘지역쿠폰제’

공동구매 지원방식은 약간의 예산절

감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농촌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부 제조회사와 극소수의 납품업자는 득을 보겠지만, 농촌경제를 지키는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권을 납품회사에 빼앗기며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쿠폰제’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농민들은 그 지역쿠폰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농산물품을 지역의 단골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영세상인도 보호하는 동시에,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농민과 지역상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섬세한 농정시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디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농정시책’이 보다 많이 발굴되고 시행되어 농촌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주요처리안건

충청북도 지방기술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위원수를 대폭 증원하고 위원자격을 명확히 하며 턴기, 대안 입찰에 따른 별도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참석위원의 수당 및 설계심의수수료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정비.
• 위원회의 기능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2006. 12. 29개정)에 따라 정비.
• 사전기술검토에 따른 수당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산출근거 및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과 청주의료원 한방 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를 신축하며 반도체 관련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취득하려는 (주)삼익 소유의 공장부지 매입계획을 유지대상 기업에서 직접 매입함에 따라 취득계획을 취소하는 것임.

【승인내용】

•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계획 취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효율있는 기업 운영을 지원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중별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험용 검체 처리기간 변경.
- 식품첨가물검사 : 20일 18일.
- 식품의기구·용기및포장류검사 : 20일, 18일
- 목욕수검사 : 8일, 7일.
- 대기·소음·진동검사및공중이용시설검사 : 25일, 23일.
- 하천수, 호소수, 오폐수, 분뇨, 폐수검사 : 14일, 12일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1980년 80병상으로 건립한 충주의료원의 시설 노후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 대두로 현대화 사업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 한 도 액 : 57,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의무부담액 : 28,550백만원(한도액의 50%)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주무관청(충청북도)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 자금계획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

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내용 중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 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를 추가.
•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
•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및 제10항)
• 공무원 임양휴가제 도입(안 별표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로 학교 주

소 및 명칭변경과 학교이전,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로 법정 동명과 학교명을 일치하기 위한 학교 명칭 및 주소 변경.
•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주소 변경.
• 학교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만수리 오송생명과학단지 64B/L)
•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 분장 사무에 관한사항을 부합시키고자 일부 사항을 보완·개선함.

【주요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준용
•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 조정
•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대책반 명칭 조정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제1회 추경예산안

건강보감

“화병”의 치료와 예방

화병은 오랜 기간 지속된 부당한 대우나 재앙을 입은 충격적인 사건이후에 화가 해소되지 못하여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느낌, 좌절감, 답답함 등을 주소로 하는 일종의 분노반응을 말합니다.

화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으로 숨막힘, 한숨, 가슴 뻘, 열감, 두통, 치밀어 오름의 신체적인 증상과 우울, 하소연, 불안, 의욕상실, 충동, 후회와 같은 심리적 증상 등입니다.

화병은 증상표현이 매우 특징적인데, 신체증상이 두드러지고 표현이 과장되고 강렬하며 온몸으로 말하는 인상을 주고 원색적인 단어와 고유의 사투리를 쓰

는 경우가 흔하고 말이 많은 편이며 충동적, 파괴적 표현을 자주 쓰고 애매한 표현을 자주하는 것 등입니다

화병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은 아니고 억울하고 동일한 감정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고 이를 풀지 못해, 나이가 들어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시기에 불처럼 폭발하는 병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에 걸리는 원인은 대개 배우자(주로 남편)와의 갈등, 시대 식구들과의 갈등이 가장 많고 과도한 업무, 사업실패나 타인과의 금전관계에서 오는 재산상의 손실, 고생, 가난함 등 경제적 요인, 자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시험낙방, 성격문제, 자신의 오랜 지병,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정보의 홍수, 교통체증, 정치의 불안조각, 날마다 치솟는 물가고, 집값 또는 집세의 폭등에 따른 불안감과 낭패감 등입니다.

그동안 화병은 여성이 잘 걸리는 병이라 여기면서, 아주 개인적인 성격 탓 또는 여성을 억압해온 문화 탓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화병은 여성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직장인, 학생 등 우리 사회구성원 전반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병은 여러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의 다른 과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의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병 치료를 위해서는 화의 원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화를 오랫동안 눌러두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화를 분산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병은 결국 화에 매달린 결과로 생깁니다. 기공이나 명상, 신앙생활 등으로 마

음을 가라앉히는 게 좋고 그도 어렵다면 차라리 노래를 부르거나 전자오락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하여 땀을 내면 몸에 있는 화가 밖으로 빠져나가 기분이 좋아지므로 자기체질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권합니다.

체질별로 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태음인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좋지 않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음인은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하고 다소 자극성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소양인은 자극적이고 열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고 차고 심상한 먹거리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태양인은 담백한 음식을 주로하고 맵고 열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영 한의학박사〉

의원동정



◀ **김한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4월 23일 괴산군민회관에서 실시된 장애인 날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 현안 청취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4월 4일 청주시 장성동에서 실시된 노인복지공로 공덕비 제막식 및 경로잔치에 참석, 당면현안 및 의견수렴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4월 10일 대전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산업건설위원장과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 협의



◀ **강태원**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4월 10일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건설소방위원장과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상생협력방안 협의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4월 24일 옥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새마을가족 격려



◀ **최광욱**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4월 17~18일 서울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전국 주부교실 전국지도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참석자 격려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4월 15일 충주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현안 청취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4월 22일 단양군 매향가평리에서 실시된 경로잔치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현안 의견수렴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4월 25일 청주시 운동중학교에서 실시된 운동중학교 개교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발전방향 논의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4월 27일 보은군민체육센터에서 실시된 새마을운동 제37주년 기념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4월 26일 청주산업단지 삼익부지에서 실시된 하이닉스반도체 M11 Line (신규 공장) 기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4월 21일 충청대학에서 실시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충북)지구 제27회 연차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3월 23일 아름다운가게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4월 1일~30일 청원군 일원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논의와 지역여론 수렴 및 현안사항 청취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4월 25일~30일 보은발전협의회 사무실과 보은군내 일원에서 군부대 및 사격장 이전 군민서명운동 주관



◀ **김병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4월 28일~29일 괴산군에서 실시된 제17회 생활체육문화축제에 참석, 관계자 및 생활체육도호인 격려

〈말뚝이 세상돌이〉

'1%의 영감과 99%의 땀' 그리고 천재 만들기

미국 미시간주, 휴런호(5대호 중의 하나) 인근의 포트휴런에는 발명왕 에디슨 박물관이 있다. 클레이어강의 블루위터 브릿지 아래 자리 잡은 에디슨박물관은 위대한 발명왕이라는 그의 명성과 달리 규모가 작고 아담하다. 강변의 넓고 한적한 잔디밭 위에 실물대의 소년 에디슨상이 서 있고, 전원주택을 방불케 하는 4~50평쯤의 단독가옥 한 채와, 그 뒤에 배치해 놓은 구식 객차 2량이 전부다. (오하이오주 밀란의 에디슨 생가도 박물관이라 함)

그 안에 전시된 물건들은 에디슨의 발명품을 망라한 것이라기보다, 소년기 에디슨의 생활사를 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평생에 걸쳐 발명에 몰두, 1천93개의 발명특허를 얻은 에디슨을 일러 '발명왕' 또는 '발명의 천재'라 일컬어 왔지만, 소년 에디슨을 천재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3개월을 다니다 퇴학당한 것이 그의 공식학력(學歷)의 전부일 만큼 엉뚱하고 불운했으며 그리고 가난했다.

다만 에디슨의 어머니만이 그의 엉뚱한 행동이 주변의 모든 사물이나 상황 가운데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이 일탈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선택적 반응현상 때문이란 사실을 이해한 것이다. 에디슨의 행동이 소질과 흥미에 따른 탐구적 행위라 판단한 어머니는 에디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욕구를 억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조장(助長)해 준 것이다.

따라서 에디슨에게 주어진 '위대한 발명가'란 칭호는 타고난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회를 열어준 조장의 결과요 그로 해서 길러진 열정과 인내의 결과였다.

사람들이 자신을 천재적인 영감을 가진 발명가라 칭송할 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입니다.'

이 말이 에디슨이 최초로 발언한, 독창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18세기경 프랑스 문학가 뷔퐁(GL de Buffon)은 '천재란 인내에 대한 위대한 노력이다.'라고 말 했고,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

(A. P. Chekhov)도 '천재는 노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천재(天才)이기를 갈망한다. 갈망이 긴 기간 지속된다보면 고정관념화 되어 어느 사이엔가 '내 자식은 천재다'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조금만 마음에 이겼자저 조기교육에 과외교육으로 자녀를 몰아붙이다 보면, 아이는 실증을 내고 좌절하며 정서불안을 일으킨다. 상충되는 부모의 희망과 아이의 흥미, 진도가 안 맞는 부모의 기대치와 아이의 능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다.

결국 어머니의 머릿속에 입력되었던 내 아이의 '천재 상'은 날개도 없이 추락하여 수재(秀才)로, 범재(凡才)로, 경우에 따라서는 둔재(鈍才)에, 문제아로까지 전락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곧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열정을 쏟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땀 흘려 천재가 되게 하는 길임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교육의 '제1과제'이다.

수영의 천재 박태환군('0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 발레의 천재 박세은양('07, 로잔국제발레콩쿠르 1위), 그리고 피겨의 천재 김연아

양,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양, 모두가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다. 땀으로 이룬 천재요,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준 어머니의 힘이었다. 천재성 보다는 땀의 결실이요 끌어당기는 강요가 아니라 즐기면서 하도록 밀어 준 조장(助長)의 열매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의 25.7%가 특정공포증, 강박증 등 각종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 또 10명 중 7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 중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1위라 한다.

개인의 취미나 소질의 신장 기회가 없는 일률적인 학습강박, 일류대 진학이라는 경쟁강박, 지켜온 학원순례 강요, 이런 것들이 청소년 정신질환의 원인이요, 천재로의 길을 막는 약재다. 정부와 학교와 부모, 그중에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들볶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땀 흘리며 즐겨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요 그를 조장하는 것이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길임을, 에디슨의 어머니는 일찍이 깨달았건만...

〈안수길 소설가〉

*청주문인협회 회장